

존엄한 생명, 노인

백은성 (인하의대 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졸, 현 한국누가회 대표간사)

1. 노인, 존엄성

1) 노인은 누구인가

(1) 노인의 개념

노인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인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노년학자들도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의 개념이 각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고, 동시에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 복잡한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인의 기준이 다양하다. 전통적으로는 손자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리고, 만 60세가 되면 노인 진입식이라고 여겨지는 환갑잔치를 하고 노인으로 인정하지만, 생활보호법(1961년)과 노인복지법(1997년)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인 정년퇴직 연령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55세~60세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여러 정의들을 검토하여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정의를 내리자면,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와 사회적 역할 변화가 일어나, 보수적이고 온건하며 의존성을 띠고 왕성한 사회적 역할이 축소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¹⁾

본 글에서는 역연령(曆年齡, chronological)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성경에 나타난 노인

성경에도 물론 노인이 체운이 낮아지거나²⁾ 시력이 감퇴되는³⁾ 등 신체적으로 연약함⁴⁾을 지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노인이 언급될 때는 보통 다음 세 단어와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 단어는 복, 지혜, 그리고 공경이다.

a. 복 - 히브리 사회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표시였기 때문이다.(신4:40; 5:33; 11:21; 30:20 등) 특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도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신5:16; 엡6:2,3) 때때로 가정의 화를 말할 때 집안의 노인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삼상2:32) 장수하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표현하고 있다.(사65:20)

또한 노인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중보자였다. 이삭도 자녀에게 '복'을 빌었으며(창27:4, 23; 28:1), 야곱도 그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빌었다.(창48, 49장) 노인은 '복' 자체였을 뿐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b. 지혜 - 노인은 지혜로운 자로 표현되어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를 지키며 얻은 명철을 노인과 비교하고 있으며,(시119:100) 노인과 백발은 지혜자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겔27:9; 호7:9). 열왕기상 12장에는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충고와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한 일을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그 지혜로 인하여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되었고(민11:16), 주의 행하신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시71:18).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하며, 아비에게 어른에게 물으라고 명했다(신32:7).

c. 공경(존경) - 노인은 공경해야 될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성경은 노인을 보살피지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신28:50) 민족을 흉악하다고 말한다. 특별히 노인 공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명령

1) 이인수, 현대노인복지론(서울: 양서원, 1999), p.29.

2) 왕상1:1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개역개정판)

3) 창27:1a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개역개정판)

4) 노년의 연약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 12장 2절부터 5절까지이다. 여기서 노년기에 신체 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 십계명(출20:12; 신5:16)의 사회적 확대로 볼 수 있다. 심지어 노인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명령하고 있다.⁵⁾

성경은 노인을 나타내는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으로(잠16:31), 늙은 자의 아름다움으로(잠20:29) 표현함으로써, 노인을 부정적 의미보다 복 있고, 지혜롭고, 공경을 받아야 하는 긍정적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2) 노인의 기본통계

(1) 노인에 대한 통계

2000년 7월 통계청 인구분석과는 7월11일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하여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⁶⁾를 내놓았다. 그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노령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노인에 관계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평균수명 증가 - 의료기술의 발달 및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1989.7.1.)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였다. 1997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70.6세, 여자 78.1세로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은 74.4세로 1971년에 비해 12년 연장되었다.

b. 노령인구 증가 -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998년에 300만 명(6.6%)을 넘었고,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 65세 이상 노령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비고 \ 년도	2000	2005	2010	2020	2022	2030
총인구	47,275	49,123	50,618	52,358	52,536	52,744
65세 이상	3,371	4,253	5,032	6,899	7,527	10,165
구성비(%)	7.1	8.7	10.0	13.2	14.3	19.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더욱이 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두 배로 증가하는 걸리는 기간이 22년이며, 14%에서 20%는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통계에 나타난 문제들

a.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감소 - 노령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는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부양연령층 100명이 부양해야하는 노년부양비는 2000년에는 불과 10명이나 2030년에는 3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는 33명이지만 2030년에는 120명이 되어 노령화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b.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 - 더 큰 문제는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1985년 6.6%에서 1995년 13.2%로 10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여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⁷⁾

또한 핵가족화가 계속 되면서 가족원의 수가 줄어드는 소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5) 레19:32 너는 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개역개정판)

6) <http://www.nso.go.kr/report/data/svgg2000.htm> (23 Jul.2000)

7)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인 서울대 이시백 교수는 1999년 6월 12일 경북대 강당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역의 고령자 실태와 대책’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가운데 노인단독가구가 42.3%에 달한다고 밝혔다. (늘 푸른 삶, 통권1호(1999년9월), p25.에서 인용)

가족원 수의 감소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를 뜻하며, 특히 가정에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주부양자의 과중한 부담을 나타내기도 한다.

<표2> 연도별 평균가족원 수의 변화추이 (단위 : 명)

연 도	1960	1970	1980	1990	2000
평균가족원수	5.7	5.2	4.6	3.7	3.2

(자료 : 경제기획원,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확정결과보고, 1987.
경제기획원, 인구동태 및 장래인구 추이, 1989)

3) 노인과 존엄성

노인에 대한 존엄성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특별히 갑자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가정 내에서 1등 가족은 아들과 며느리이고, 2등 가족은 손자와 손녀이며, 우리 같은 뒷방 늙은이들은 개나 고양이와 함께 3등 가족”이라는 어떤 노인의 불만은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존엄성 정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1990년 UN 총회에서도 지구촌 인구의 고령화를 의식하고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또한 1992년 UN 총회에서는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사는 사회’(Towards the society for all ages)로 주제를 정하고, 노인의 자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성(Dignity) 등의 5대 노인복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UN은 이를 다시 18개의 조항으로 세분하였는데 그중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존엄성 원칙 >

- (1) 노인은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가져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착취를 받아서는 안 된다.
- (2) 노인은 연령, 성별, 종족, 인종, 심신장애, 경제수준의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노인들이 존엄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10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 있고 34조에서는 사회보장으로서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

둘째는 노인들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만한 일을 사회에 해놓았기 때문이라는 당위성에 근거한다. ‘세계노인의 해’를 1999년에 지정한 배경⁸⁾에도 이런 논리가 들어있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제2조 1항)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2. 우리 시대의 노인 - 문제꺼리

그러나 우리 시대의 노인은 복 있고, 지혜롭고, 공경을 받을 만하다거나, 존엄하지 않은 것 같다.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노인다운 노인이 없다! 사회, 경제적으로 퇴락하고, 생물학적으로 노화된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다. 노인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1)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of Aging)

산업화된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문제의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코우길(Cowgill)과 홀즈(Holmes)의 현대화 이론이다. 코우길은 현대화의 핵심요인을 다음의 4가지로 보았는데, 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② 생산기술의 발전, ③ 도시화, ④ 대중교육의 확대 등이다. 이것들이 결국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는 이론이다. 각각을 살펴보면⁹⁾.

8) “왜냐하면 UN은 인류역사상 가장 격변기였던 20세기를 헤쳐 온 주역인 노인계층에 대해 범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9) Diana K. Harris, 노년사회학, 최신태, 김모란 옮김 (서울: 하나의학사, 1998), pp. 129-131. 이인수,

(1) 보건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의 발전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은 기대수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를 야기시켰다. 코우길에 의하면 이것은 다시 직장에 대한 세대간 경쟁을 초래했으며, 직업상 경쟁에서 젊은이에게 뒤진 노인들은 퇴직을 당하게 되었다. 퇴직은 노인의 역할상실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보건의료기술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지만, 역할이 상실된 긴 여가시간을 만들게 되어 노인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2) 생산기술(Industrial technology)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전은 노동력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보다 새롭고 전문화된 직업을 만들어 내었다. 기술적 훈련을 받은 젊은 기술자들이 이러한 직업을 차지하게 되고, 동시의 노인의 직업들은 시대에 뒤쳐지게 된다. 결국 노인들은 생산 현장에서 밀려나는 퇴직을 감수하게 된다. 조기퇴직은 노인의 지위와 수입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 또한 신체적 노화로 발생하는 건강약화와 질병은 감소된 수입 때문에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3) 도시화

생산기술의 발전과 현대 산업화는 농업의 쇠퇴와 여성 전문직종의 확산을 가져온다. 이는 주거지역을 부모와 농토가 있는 시골에서 새로운 기회와 직업이 있는 도시로 이주하게 만든다. 젊은이들은 이제 노인의 토지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생계를 벌게됨에 따라 노부모의 권위와 통제는 약화된다. 도시화는 지역간의 이동과 핵가족화 현상을 촉진시켜 세대간에 지리적으로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한편, 심라·사회적으로도 더욱 거리감이 생겨 결국은 노인이 자녀세대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4) 대중교육의 확대

대중교육의 확대로 후세대가 선세대보다 교육을 많이 받게 되고, 선세대는 교육수준에서 뒤지고 지식도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지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노인은 이전의 교육적 기능을 빼앗길 뿐 아니라 젊은이들로부터 지식적 측면에서 분리된다. 이로 인하여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고 대화로 어렵게되어 실제로 심라·사회적인 소외와 고립이 발생한다.

2) 노인문제

현대화 이론은 몇 가지 한계가 있지만 노인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현대화 이론과 비슷하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노후준비가 부족하고,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어가고, 가족들의 부양기능을 보완하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노인문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빈곤, 병고, 고독, 무위 등 4고(김태현,1994)로 표현하거나, 빈곤, 병고, 고독 등을 3악(최순남, 1997)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런 노인문제는 '상실'의 개념으로 본다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이런 노인문제의 실상을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¹⁰⁾

(1) 경제문제(빈곤) : 노인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은퇴 이후의 수입원¹¹⁾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노인은 빈곤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연금제도가 공적부조가 미비하기 때문에 더욱 심하다.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정경희 외, 1998)에서도 65세 이

pp.106-109.

10) 4가지 노인문제는 결국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노인복지 관련서적이 노인복지의 정책분야를 소득보장(경제), 의료보장(건강), 주택 및 피부양자 보장(가족), 사회적 서비스(여가)로 나누고 있다.

11) IMF체제 이전인 1997년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5세이상 인구의 취업자수는 343만명 수준으로, 전체 55세이상 인구의 16.3%에 해당하며, 정경희 등이 1998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의 29%가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의 통계를 보면 17.1%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관·선우덕,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의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복지대책", 노인복지연구 제4호(1999년 6월): 158-159.에서 재인용.

상 노인의 경우 노후대책을 마련했는가 하는 질문에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의 한달 용돈(리서치 앤 리서치, 1999.3.)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62.7%에 해당하였다. 주 수입원은 자녀들¹²⁾인데, IMF이후로는 빈부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자녀들의 생활이 위축되어 노인들의 경제적인 곤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2) 건강문제(병고) : 우리나라 노인의 59%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1994)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질병이 없으면서 활동이 자유로운 노인은 13.3%에 불과하다. 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6.7%가 관절염, 요통, 좌골통, 고혈압, 백내장, 당뇨, 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31.9%는 질병이 있으면서 목욕하기, 옷갈아 입기, 식사하기, 앉기, 걸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3.5%의 노인들은 이러한 6가지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치매, 중풍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 요양할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일반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의료비 과다로 부양가정에 경제적 타격을 주게 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7세 먹은 자녀가 기침하면 새벽이라도 응급실로 달려가지만 70세 먹은 노모가 아프면 또 아프냐는 핀잔을 듣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다.

(3) 노인부양문제(고독) : 노인의 고독감은 노인부양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노인의 부양은 물질적 부양, 신체적 부양, 심리적 부양이 있다. 이 세 가지 중 노인의 고독과 불안감은 심리적 부양¹³⁾이 결핍에서 온다고 본다. 또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양자의 입장에서는 노인문제가 하루하루 일상의 문제가 된다. 실제로 치매나 중풍 노인을 부양하는 주부양자들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런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 역시 부정적으로 가는 양상을 보인다.

(4) 역할상실문제(무위) : 노인의 삶을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인이 겪는 상실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사회에서의 역할의 상실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역할의 상실, 자녀의 성장과 출가로 인한 역할의 상실, 가까운 친구나 친지의 사망으로 인한 역할의 상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의 상실로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기대감, 전통적 가치관과는 다른 현실, 고정적으로 가지게 되었던 수입의 단절, 대인관계의 축소 등에서 오는 가치관의 변화 등은 노인들로 하여금 무능력을 느끼게 하고, 또 다른 소외와 고독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별히 우리사회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것은 노인들이 살았던 시대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독재의 시기로 혼란의 시기였고, 이 속에서 생계해결과 자녀 교육에 많은 노력을 쏟으면서 실제로 자신들을 위한 교육과 노후 준비가 소홀했던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여진다. 대체로 노인들은 낮은 교육 수준과 부정적인 행동통제기술을 가지고 있다.

3. 인간 이하(Sub-Human)의 노인실태 - 노인학대¹⁴⁾

앞에서 살핀 노인문제가 그래도 덜 심각하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문제라면 노인학대는 오히려 생소하고 일반인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그 심각성이 매우 큰 문제이다.

1) 노인학대의 특성

12) 손승영, “노인과 빈곤”,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엮음(서울: 사회문화연구소,1999), p.173. 노인의 44.3%가 자녀에게 의존하며, 37.6%가 본인의 근로소득을, 6.9%가 부동산이나 집세 또는 저축을, 3.9%가 연금이나 퇴직금을, 3.5%가 정부보조금이나 노령수당으로 충당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3) 심리적 부양에는 문안과 대화 및 가사에의 참여 등이 있다.

14) 노인학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노인의 인권이 그런 대로 보장되어 있는 선진 외국이 학문적 연구가 활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학대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인 요인(가치관, 전통, 미풍양속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전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많이 생겨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로도 노인에게 생기는 만성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유지시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의존성¹⁵⁾은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사회의 노인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자신들을 가꾸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존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취업의 증가로 며느리나 딸로부터 부양을 받을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노인에게 대한 가족부양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며, 아직까지 사회의 지원체제가 미숙한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의 소외,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후이며,¹⁶⁾ 그 후 학대방지법 만들어졌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93년 최해경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가 노인학대에 대한 거의 최초의 학문적 연구이다.¹⁷⁾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의 노인학대문제는 그 발생 빈도와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발생하면 뉴스감과 사회의 지탄의 대상만이 될 뿐이다. 그것은 노인학대의 특성 때문이다.

노인학대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데다가,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성인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이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가 자신이 학대받았다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더군다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감의 부족 등이 학대의 존재를 노출시키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학문적 관심의 부족은 노인차별주의를 만연하게 하였고, 노인들의 학대받을 가능성에 대해 외면을 불러 일으켰다.¹⁸⁾ 또한 우리사회에 깊숙이 깔려있는 유교문화와 효 사상은 더욱 노부모 학대인 노인학대를 은폐하게 만든다.

2)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학대자나 피학대자의 주관적 요인도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또한 학대란 말이 주는 어감이 매우 강해서 그런지 학대보다 방임이나, 방치, 잘못된 처우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발표된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면.¹⁹⁾

맥도날드(Lynn McDonald, 1996)는 노인학대는 노인들이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원조에 의존하는 가족이나 시설 보호자들이 노인들에게 가하는 해로운 행동을 말하며, 이러한 행동은 노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곤란을 야기하는 신체적, 심리적, 물질적인 손상을 주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법(Older Americans Act)에서는 노인학대를 ‘학대(Abuse)’, 방임(Neglect)’, 착취(Exploitation)’의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했다. 학대란 고의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행위, 부당한 감금, 협박,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잔인한 처벌, 혹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 정신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박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임은 신체적인 상해나 정신

15) 의존성은 도움이나 애정을 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Blenkner(1969)는 의존성을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는데,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신체적 의존성(physical dependency), 정신적 의존성(mental dependency), 사회적 의존성(social dependency) 등으로 나누었다. 의존성 이론은 노인의 의존욕구로부터 야기된 스트레스가 부양자로부터 학대를 유발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다.

16) 1978년 Claud Pepper가 매년 적어도 100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학대로 희생된다고 보고함으로써 노인학대문제가 사회화되기 시작했다. 김현수,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16.에서 재인용.

17) 서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호(2000년 3월): 33.

18) 이선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3.

19) 서윤, p.29-31.

적 고통, 정신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본인이 스스로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제공하지 않는 것이며, 착취는 보호자가 금전적 혹은 사적인 이익, 영리를 위해 개별 노인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이나 과정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유형²⁰⁾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해경(1993)은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학대와 의료적 부적절한 처우, 방임 및 재정적 착취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의 경우도 신체적 폭력,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이해영(1996)의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및 방임으로 구분하였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양거부 및 노인유기를 포함할 것을 제외하였다.

우리 사회의 정서를 고려하여 노인학대를 정의하면,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하는 것으로, 방임에는 노인 스스로가 어떤 이유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

3) 노인학대의 실태

전국적인 노인학대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노인학대의 특성 때문에 조사가 잘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아래의 몇 가지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의 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가 난다.

(1) 김현수(1997)는 파고다 공원에 있는 65세 이상의 남녀 노인 80명을 상대로 개별면접을 한 결과 한 번만이라도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중 35명으로(43.8%) 나타났다. 이중 심리적 학대가 35.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가 22.5%, 방임이 18.8%, 언어 학대가 15.0%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학대에서는 가족들로부터 소외²¹⁾당하거나 함께 살기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경제적 착취에서는 용돈이나 생활에 필요한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언어 학대는 거부적 언어가, 방임은 집에서 음식을 주지 않거나 오랜 기간 혼자 내버려진 적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네 가지 학대가 거의 매일 가정에서 며느리와 아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조를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조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집안 일이라고 생각해서와 창피해서가 79.3%를 차지했다.

(2) 조애저 등(1999)은 전국 6대 대도시의 12개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8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노인 중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대 피해노인은 고령(75세 이상이 9.9%)일수록, 학력이 낮을 수록(중학교 이하 9.3%), 배우자가 없을수록(10.2%) 많았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언어·심리적 학대가 7.7%, 방임은 2.5%, 경제적 착취는 2.1%, 신체적 학대는 0.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부모 학대 건수 중 42.7%가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를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39.5)이며, 그 다음은 성격차이(22.1%)였다.

학대받은 노인 중 8.5%가 두통을 비롯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였고,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무력감, 불안감, 우울증 등 정신적 증상을 76.6%가 호소하였다. 이들 중 19.4%가 의료처치의 경험이 있었다.

학대받은 노인들의 62.8%가 끝까지 참는다고 하였고, 피해노인들은 학대를 피하기 위해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대 발생시 신고한 경우는 1.1%로 상당히 낮았고, 본인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한다면 신고할 의향은 26.9%인 반면에 이웃 가정의 학대 발생 시에는 58.8%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3) 서윤(2000)은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국의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5.2%가 노인 학대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히 발생하는 학대의 유형은 방임

20) 조애저.김승권.김유경, 노부모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pp.38-42.

21)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로부터의 소외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한다. 짐작 없이 여겨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노인들은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낀다.

이며, 신체적 학대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학대가 97.9%가 가정에서, 93.7%가 직계 가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다. 피해노인들은 복수 처리한 응답으로 92.4%가 그냥 참는다가 많았다.

(4) 존속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집계²²⁾

2000년 한해 존속살인이나 폭행, 그리고 상해 사건은 한달 평균 123.5건이나 일어나 지난해 월 평균 116.3건을 넘었다. 특히 2000년 11월까지의 존속 살인은 모두 83건으로 지난 한해 51건의 1.6배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면 정확히 노인학대의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쉬쉬해야할 정도가 아니고 드러내어 해결해야될 정도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에서 노인학대의 정도를 65세 이상 노인의 약 8%정도로 생각한다.

4)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학대의 원인도 노인문제의 원인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몇 가지 연구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크리스틴과 맥다니엘(Christine & McDaniel, 1997)은 노인학대의 원인을 ① 노인의 의존성으로 대표되는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 ② 노인과 부양자 사이의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과거의 갈등 및 힘의 갈등과 같은 가족 내적 요인(interpersonal factor), ③ 부부문제, 경제적 어려움, 장기간 계속되는 부양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 의료적인 문제 등을 포괄하는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 ④ 노인이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 등 4가지로 요약하였다.

(2) 필레머와 슈이터(Pillemer & Suitor, 1992)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① 노인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을수록, ② 노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③ 노인이 분열적 행동을 보일수록, ④ 부양자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⑤ 부양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⑥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수록, ⑦ 부양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 ⑧ 노인과 부양자가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노인학대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3) 이선이(1999)는 노인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며느리, 딸, 손녀 등의 세대가 역전된 여성부양자 200명을 조사하였다. 학대에 미치는 요인을 노인관련요인과 부양자관련요인으로 구분하여, 노인관련요인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존성, 부정적 행동통제기술을 들었고, 부양자관련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가족 스트레스를 들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관련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월평균 수입, 의료비는 노인학대 정도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고,²³⁾ 이환된 질병의 수만 큰 관련을 나타내었다. 의존성 중에도 노인학대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일상적인 건강보호 의존성이었다. 또한 노인의 부정적인 행동통제기술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노인들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2가지 이상의 질환에 이환되어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 부정적인 행동통제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부양자관련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교육정도, 월평균 수입, 그리고 동거가족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이었다. 즉 부양자의 교육수준이 낮고(초등학교 이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월수입 100만원 이하) 부양자일수록, 동거가족이 적어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 노인을 수발해야하는 상황에서 노인을 학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부양자의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가족 스트레스는 크게 작용하였다. 즉 노인과 부양자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할 때 학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 <http://www.sbs.co.kr/news/news16.html> (27 Dec. 2000). 2000년12월17일(일) SBS의 '뉴스추적' 보도 중에서.

23) 이것은 앞에서 살핀 결과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가 우리 사회의 상황과는 잘 부합된다고 여겨진다.

5) 노인학대를 허용하는 사회

노인학대의 요인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지금의 젊음을 이상시하고, 노인이 TV 프로에 우스꽝스럽게 변해버린 사회 분위기를 일컬어 新(신)고려장 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 속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들이 버림받고 있다. 2000년의 연말(12월17일)에 SBS에서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고발이라도 하듯 ‘현대판 고려장 - 버려지는 노인들’이 방송되었다.²⁴⁾

11월 27일 인천의 한 복지관 뒷산에 칠순의 노인이 이불에 싸여진 채 버려진 것이 방송되었다. 추운 날이라 이불에 싸여진 채 발견된 손 할머니는 70세로 중풍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할머니는 아들에 의해 버려지게 되었다. 중풍에 걸린 자신을 탓하던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다.

1년 전 자식에게 버려져서 용인의 한 양로원에 사는 85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와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자녀들의 소외로 딸집을 나와 세 달째 노숙을 하고 있는 92살의 김 할머니의 이야기도 방송되었다. “저희는 생전 젊어서 죽을라나...” 김 할머니의 원망 섞인 말이다.

이런 기사들은 노인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나아가 학대하고 학대를 허용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분노하는 노인

효자나 효부는 이제 옛날 이야기 속이나 등장한다. 거리를 헤매는 노인들을 추적하면 자녀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변화’라기보다는 너무나 몰인정한 ‘추락’이다. 한 대학에서 탐골 공원을 찾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노인의 4%가 한끼로, 10%가 2끼로 하루의 끼니를 채우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42만 명의 노인이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7-8명 중 한 명의 꼴이다. 1999년 정부 예산 중 노인복지에 배정된 재원은 고작 0.25%, 선진국의 4-7%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²⁵⁾

다수의 노인들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인들의 정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분노’일 것이다.

1) 노인이 느끼는 행복지수

전국의 9개 지역의 노인복지관의 재가 무의탁 노인들 695명을 조사한 한 연구²⁶⁾에서 노인들에게 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에 불만족하고(58.2%), 인생이 허무하며(57.5%), 지루하다고(63.8%) 응답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무기력하며(67.0%), 삶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46.6%), 행복하지 않다고(60.8%) 응답하였다. 60%가 넘는 노인들이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2) 노인들의 불만

얼마 전 노인복지회관에서 만난 할아버지도 정부의 노인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 !”

탐골 공원의 풍경을 그린 글에 다음과 같은 노인들의 불만이 실려있다.

“노인들을 위한답시고 경로당 하나 지어주면 그만이야. 화투판, 바둑판, 장기판 디밀어 주고 너희들은 딴 데 가지말고 여기서만 놀아라 그래. 때되면 라면 박스 메고 와서 사진 찍어가고. 동방예의지국, 경로사상 투철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거야. 노인은 화투만 치고, 장기만 두냐? 때되면 라면 먹고 약수터에나 오르내리는 사람이냐고.”

“칠십 먹은 노인네가 대통령인데,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말이여.”

3) 노인의 안타까운 선택

24) <http://www.sbs.co.kr/news/news16.html> (27 Dec.2000)

25)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소식지, “꿈이 있는 사람들” (1999년 겨울), p.4.

26) 김지현, 재가무의탁노인 건강관리사업 조사보고서(서울: 글로벌케어, 2000), p.66.

조애저 등의 조사에 의하면 학대 피해노인의 76.6%가 정신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 상실’(30.8%), ‘매사에 불안, 우울함’(29.7%) 등이었고, ‘죽고싶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22.0%나 되었다. ‘죽고싶다’는 생각은 여자 노인이(23.4%) 남자 노인보다(14.3%) 많았으며, 74세 이하가(24.3%) 75세 이상(11.8%)보다 많았다. 또한 건강이 나쁜 경우가(28.1%) 건강이 좋은 경우(10.0%)보다 월등히 높았다. 학대받는 노인들은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²⁷⁾

몇 년 전 한 일간지(중앙일보 98.12.23.)에 안타까운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당신 없는 외로움보다 죽음을 택하겠다. 미일 원앙 노부부 동반자살 잇달아’이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사는 전직 변호사 조지 화이트(82세)와 부인 엘레나 화이트(82세)가 집 주차장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 조지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운영난을 걱정해 왔고 골다공증과 알츠하이머병(치매)에 시달리고 있는 부인의 건강 상태를 비판하여 부인을 먼저 살해한 뒤 자신도 권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플로리다주 베니스의 존 세세(88세)와 실비아 세세(90세)도 최근 비슷한 이유로 함께 생을 마감했다. 주변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부인을 5년 동안 지극 정성으로 보살펴온 남편 존이 심장병을 앓게 되면서 부인을 요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자 이를 비판해 목숨을 끊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기타큐슈시 모지구에서는 중병에 걸린 70세 노인이 함께 병을 앓고 있는 부인(67세)을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부부는 모지구 내에서 식품가게를 운영했으나 3년 전 남편이 노환으로 입원하자 부인마저 심장병으로 쓰러져 결국 가게문을 닫고 시영주택으로 옮겨 생활보호를 받으며 생계를 꾸려 왔었다.

비록 외국의 이야기이지만 병든 노인부부가 동반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미 노인문제가 가정의 문제를 떠나 사회의 문제임을 잘 나타내주는 기사이다.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기사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할 것이다.

4) 군포 이야기²⁸⁾

(1) 노인으로 인해 파괴되는 가정

김 할머니(62세)는 5년 전에 심한 지주막하 출혈로 중풍이 왔다. 2년 전에는 60세 된 여동생이 같은 이유로 중풍을 앓았다. 김 할머니는 적절한 수술과 재활치료를 호전되었으나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다시 누워야했다. 여동생은 중풍의 정도가 심해 큰 수술을 2번 받았고, 거의 누워있어야 했다. 문제는 이 두 분을 부양하는 아들과 며느리였다. 며느리가 부양하다가 지치고, 경상도에서 살았던 이 가정은 두 분의 병원 생활을 위해 아들이 서울로 와야했다. 이 부부는 원하지 않은 긴 별거를 하였고, 결국 노모가 죽은 뒤에 합친다는 생각을 하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이혼을 했다. 그러나 노모는 그런 대로 살아 계시고, 시간은 많이 흘러 다시 합친다는 생각이 어려워짐을 아들도 느낀다. 얼마 전에 이모님은 뇌출혈이 재발되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도 누워 계신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생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신 할머니(75세)는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다. 수년 전부터는 고혈압까지 발병되어 매일 조심해서 약을 드셔야했다. 방문을 하여 환자를 진찰하니 몸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했다. 아님나 다를까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미혼의 막내아들과 둘만 살고 있고, 근처의 출가한 딸이 살고 있다. 할머니는 신부전 때문에 투석을 준비해야한다. 그러나

27) 통계청이 지난 9월에 발표한 ‘2001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사망원인 중 자살이 1991년 9.1명(인구 10만 명당)에서 2001년 15.5명으로 증가하여 사망원인 10위에서 8위로 두 계단 상승하였다. 자살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구성비가 14.6%(1991년)에서 28.7%(2001년)로 무려 14.1%나 증가하였다.

28) 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월 3-4회 정도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의 요청으로 집에 누워 계신 거동불능 노인과 무의탁고령자들을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주로 빈곤과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진료하였기에 노인의 심각한 형편을 많이 보게 되었다.

할머니의 입원을 두고 여러 아들과 딸이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들들은 직장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딸은 자신도 살기 빠듯하고 자녀들 때문에 서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으로 쓰러지시면 도의적인 이유로 병원 응급실을 찾지만 급한 불을 끄면 다시 모시고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할머니는 이미 삶의 의욕을 잃으셨다. 이 가정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평안해질 것 같다.

(2) 할머니의 울음

신 할머니는(79세)는 4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어렵게 키운 분이다. 그 때는 모두 어려웠기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키웠다. 큰딸은 출가하였고, 아들도 잘 되어 이제는 집에 자가용을 둘이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이다. 그러나 긴 세월과 지나간 고생은 할머니에게 신경통, 중풍, 고혈압 등을 주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맞는지. 아들은 그런 대로 어머니를 위하지만, 며느리가 그렇지 못하다. 며느리도 맨 처음에는 할머니를 위했다. 그러나 몇 번 응급실로 할머니가 입원하시고 나자 며느리가 손을 놓기 시작했고, 아들 며느리가 싸우기 시작했고, 아들로 어머니의 존재가 부담스럽기 시작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가용이 두 대면 뭐하고, 집이 아무리 크면 뭐하나. 나 좀 빨리 죽는 약이나 지어 줘.”

장 할머니는(77세) 사별한 집에 후처로 들어가신 분이다. 할머니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자녀들이 잘 대해주었다. 그러나 수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녀들은 남이 되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하나 없으니 누가 돌보는 사람 없고, 재산도 없었다. 기른 자녀들이 작은 쪽방 하나를 얻어주었을 뿐이다. 그 후로 할머니는 술을 드시며 우신다. “살기 싫어. 뭐 먹고 죽는 약 없나. 그래도 내가 지들을 키웠는데”

5) “고아와 과부”

지난 몇 년간 노인들을 많이 만나고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노인은 “복 있고, 지혜롭고, 공경 받는 자”라는 생각보다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노인들은 이미 집안의 문제 거리가 되었고, 치매나 중풍 등 큰 병을 앓을 경우에는 집안의 ‘재앙’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늙은이’가 호칭이 되어버렸다.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처럼 여겨졌다.

노인은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자인 고아들과 체계화된 사회복지 제도나 여성에게 마땅한 일터가 없던 시대에 혼자 된 과부들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정기적인 절기마다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돌아보라고 명령하셨다.(출22:22; 신24:17) 성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의 편이 되어 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신10:18) 그들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다.(신27:19) 성경의 기록에 보면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명령을 자주 어겼지만(렘5:28; 겔22:7)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칠 줄 모르는 돌보심이 강조되어 있다.(시146:9) 그들은 종종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셨다.(시68:5) 그들에 대한 친절은 참된 신앙의 표시로 여겨졌다.(사1:17)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노인의 아버지시며, 노인의 재판장이시다. 우리가 노인을 소외시키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경시여긴 것이 이스라엘의 불경의 척도가 되었듯이 노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노인을 버려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키실 것이다.(렘49:11)²⁹⁾

5.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에 관한 성경구절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고민해 온 오래된 질문이다. 그러나 그 해답은 제각각 다르며, 인간복제의 위기 속에 있는 현재도 이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다음의 구절들을 살피려고 한다.

29) 렘49:11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① 창세기 1장 26-27절; ② 5장 1-3절; ③ 9장 6절 ④ 야고보서 3장 9절.

1) 창세기 1장 26-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개정개역판)

(1) 창조의 절정인 인간의 창조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 둘째, 인간은 하나님께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 셋째,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 넷째, 인간의 창조는 천지창조의 절정에 해당한다.

특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창조물 중에서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만물과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³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성(父性)적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³¹⁾

바빙크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술한다.

“모든 피조물은 그의 측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신의 생각의 구현물이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높고 가장 풍부한 계시이다. 그러므로 온 창조 세계의 머리이며 면류관이다.”³²⁾

인간의 창조는 천지창조의 절정이며, 정점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좋다”고 선언하셨지만(창1:4,10,12,18,21,25),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다.(창1:3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창조는 아담 없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³³⁾

(2) ‘형상(μοῦσι)’과 ‘모양(μοῖσι)’의 관련성

구약에서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이 두 명사가 병행하여 또는 상호 관련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용되지 않는다. Harris 등이 편집한 구약원어신학사전에 ‘형상(μοῦσι)’과 ‘모양(μοῖσι)’의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³⁴⁾

① 로마카톨릭은 ‘형상(μοῦσι)’이 하나님과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언급한다고 하며, 이 선천적인 형상(natural image)은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모양(μοῖσι)’은 인간이 초자연적으로 부여받은 도덕적인 모습을 언급하며 이 모양(μοῖσι)은 인간의 타락 시에 파괴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두 단어 가운데 더 중요한 단어는 ‘형상(μοῦσι)’이다. 그러나 인간이 비록 축소형이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모사품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기 위해 좀 덜 구체적이고 더 추상적인 모양이 첨가되었다. 이렇게 모양은 형상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Humbert, Barr)

③ 두 단어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단어들은 완전히 상호 교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창조결심을 기록하는 창1:26에서는 이 두 단어가 모두 사용되었다. 그러나 27절에서 창조의 실제행위를 묘사할 때는 단지 형상(μοῦσι)만이 사용되며 모양(μοῖσι)은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30) 박윤선, 성경주석 창세기 출애굽기(서울: 영음사, 1968), p.83.
 3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 김종흡 외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p.258. (이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Inst 1:14:2)
 32)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옮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p.24.에서 재인용.
 33) William Baker, 인간 하나님의 형상, 김성웅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13.
 34) R. Laird. Harris. ed., 구약원어신학사전(서울: 요단출판사, 1986), pp.238-239.

LXX은 창세기 5:1의 모양을 통상 번역되는 ὁμοιωσις가 아닌 히브리어 **מִצָּד**에 해당하는 εἰκῶν으로 번역하고 있다.(Schmidt)

④ 모양(**מִצָּד**)에 의하여 형상(**מִצָּד**)이 한정되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모양(**מִצָּד**)과 ‘피’를 뜻하는 **מַי**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둘째, 메소포타미아 전승에 의하면 실제로 신들이 그 신의 피에서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창세기에서는 **מִצָּד**이 **מִצָּד**가 가리키는 하나님과의 유사성, 즉 인간의 육체적 모습을 구체화하는 것이요, 그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교적 가르침을 의식적으로 배척하고 반박한다.(Miller)

⑤ 모양(**מִצָּד**)이라는 단어는 형상(**מִצָּד**)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장시키고 그 의미를 구체화한다. 인간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모양이 같은 형상(a likeness image)’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자(representative)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상(representational)이다. 인간은 보이지 않으시며 육체를 갖지 않으신 하나님의 보이는 육체를 가진 대표자이다. 모양(**מִצָּד**) 인간이 지상에서 적절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단어이다.(Clines)

후크마는 ‘형상(**מִצָּד**)’과 ‘모양(**מִצָּד**)’이 아래와 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두 단어가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되면서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다고 말했다.³⁵⁾ 즉 두 단어는 동의어는 아니지만 동의어처럼 사용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 두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창 1 : 26 ‘형상(**מִצָּד**)’과 ‘모양(**מִצָּד**)’이 사용됨.

창 1 : 27 ‘형상(**מִצָּד**)’만 사용됨.

창 5 : 1 ‘모양(**מִצָּד**)’만 사용됨.

창 5 : 3 ‘형상(**מִצָּד**)’과 ‘모양(**מִצָּד**)’이 사용됨.

창 9 : 6 ‘형상(**מִצָּד**)’만 사용됨.

별코프도 두 단어의 사용처를 밝히면서 두 단어의 사용의 이유를 “모양이 형상에 첨가된 것은 형상의 완전성을 표시하기 위해,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완전한 형상으로 지음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을(고전15:49)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하나님의 형상 자체(고전11:7)라고 했다.³⁶⁾

(3) ‘형상’의 의미

그렇다면 형상과 모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초대로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주장하였다. 다음에서 이를 자세히 논할 것이기에 여기서는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형상’에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מִצָּד은 성경에 16회 사용되었고, 그중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로 5회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은 우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우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많은데, 어떤 단어는 그 모양을 가리키며 또 다른 어떤 것은 헛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מִצָּד**은 신의 표상으로서 그 형상을 가리켰다.

구약학자 클라인스는 구약 당시 신의 형상물이 의미하는 바를 살피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³⁷⁾

- ① 신의 형상물은 보통 원형의 삼차원적 물체로서 입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인간은 몸과 영혼의 통전적 단일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 ② 신상은, 신이 신체적으로는 아니로되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세운 형상물로서, 자신을 대

35) Hoekema, pp.27-28.

36) Louis Berkhof,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p.414.

37) D. J. A. Clines, “The Image of God in Man”, *Tyndale Bulletin* Vol.19(1968), pp.85-101.을 송인규, “미래사회와 기독교윤리”, **신학정론** 제17권 2호(1999년 11월), p.351.에서 재인용.

표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 ③ 형상물은 많은 경우 자기가 대표하는 원형과 유사성이 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
- ④ 신의 형상물은 인간과 관련시킬 때 그것은 주로 왕을 가리킨다; 인류는 집합적 의미에서 모두가 함께 왕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 ⑤ 하나님의 형상이 왕에 대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만물에 대한 통치를 함의한다.
- ⑥ 한 번 신의 형상물이 되면 영영 그런 존재로 남는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첫 인물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창세기 5장 1-3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백 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개정개역판)

1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로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 부르고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본문이 말하지 않는다.

3절은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고 하였다. 아담은 셋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온전한 형상이 아닌 죄로 인하여 변화되고 수정된, 형식으로만 형상이고 실질적으로는 효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형상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면 셋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3)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개정개역판)

후크마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살인행위가 마땅히 처형되어야 할 끔찍한 범죄인 것은 살해된 사람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시 말해서 살해당한 사람 안에 반영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해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 구절을 주해하면서 두 가지로 답변하였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직도 적잖은 숭고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하늘나라의 거룩하신 창조주는 제 아무리 인간이 부패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분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지키고 나아가신다.

4)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개정개역판)

여기의 ‘형상’은 히브리어 **מִצַּלְ**(형상)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εἰκὼν**이 아니라 히브리어 **מִמְנֵהוּ**(모양)에 해당하는 **ὁμοιωσις**이다. 즉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했듯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적으로 또는 교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혀로 저주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

로 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분명히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죄를 지어 타락했음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과거),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현재) 존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상의 성경을 살펴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다. 이는 타락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지라도 소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인간 존엄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의 이해

1) 인간 존재의 양면성

구약학자 프랫(Richard L. Pratt, Jr.)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인간의 겸손과 존엄성이다. 즉 인간은 보잘 것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또한 위엄에 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³⁸⁾ 즉,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위치를 가르켜 준다. 구약의 고대 사회에서 형상은 종종 삼차원적인 입체로 된 사람이나 사물의 조상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를 반영하는 유일한 형상이요, 몸을 가진 형상이다. 즉 형상일 뿐이다. 원형이 아닌 형상에 지니지 않는다. 인간이 소박한 진흙 형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진실하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인양 행세하는 인본주의와 교만함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바위나 나무나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존재로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다. 이 사실이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자인가를 나타내준다. 모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왕만이 신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부하든 가난하든, 교육을 받았든 못 받았든, 매력에 있든 없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자이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넓은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들의 동상을 왕국 곳곳에 세웠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의 왕국에 자신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존엄성이 계속 망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2)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벌코프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원의(原義, original righteousness) 곧 참된 지식(골3:10), 의(엡4:24), 거룩(엡4:24)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원의의 상태는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가 아닌 매우 선한(창1:31), 매우 정직한(전7:29) 상태이며,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상실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획득되는 형상이라고 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속한 요소들로 지적 능력, 자연적 감정, 도덕적 자유 등이 포함된다고 하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손상을 입었지만, 타락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였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⁹⁾

- ① 인간의 혼 또는 영, 즉 단순성, 영성, 불가시성, 불멸성과 같은 자질들
- ②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닌 정신적 권능들이나 능력들, 곧 지성 및 의지가 발휘하는 기능들
- ③ 물질적 실체로서가 아닌, 불멸성을 공유하는 영혼의 적절한 기관으로서, 동시에 하급 피조물을 지배하는 도구로서의 인간의 몸
- ④ 땅에 대한 지배

38) Richard L. Pratt, Jr., 인간존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김정우 옮김 (서울: 엠마오, 1995), p.14.

39) Berkhof, p.417.

이런 분류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개개인의 수준에서 타락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벌코프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다.

3) 노인과 하나님의 형상

(1)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논의하였다. 이제 논의 가운데서 인간의 존엄성을 끌어내기 위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 ① 창 1:26-27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있어서 절정이며 정점이었다. 이때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완전한 상태였다.
- ② 창 5:1-3; 9:6; 약 3:9 등은 인간이 타락하였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 ③ 칼빈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의를 상실하였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으므로 인간이 숭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④ 인간은 원형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지고한 존엄성을 가진다.
- ⑤ 인간의 존엄성은 특히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에 잘 나타난다.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을 시사하고 있다.
- ⑥ 결국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2)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이 시대는 인간 중심의 사회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날마다 망가져 간다. 그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의 경향에 잘 나타나있다.

인간의 생명은 태 중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태어나지 않은, 가장 약하다고 인정되는 태아의 낙태서부터 자기의 생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의 안락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성교 후 피임약인 RU-486과, 게놈 프로젝트로 대별되는 인간복제 문제, 인간배아를 이용한 실험문제, 뇌사와 장기이식 문제, 거기다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노부부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과연 존엄한지 혼동 상태에 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인은 존엄한가? 병든 노인은 존엄한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치매 노인은 존엄한가? 인간의 존엄성의 최전선에 노인의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말한다. 인간의 지고한 존엄성에 대해 박윤선은 창 9:6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야말로 사람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형용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캔들리쉬(Candlish)는 “한 개인은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의 생명은 하늘과 영원의 표준에서 볼 때에 셀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Therefore every living individual is of inestimable value; and his life, viewed in the light of heaven and eternity, is beyond all calculation important.)”

프란시스 웨퍼도 노인에 대한 존엄성을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신자가 됐든지,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비신자가 됐든지, 어느 연령 계층이든지,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또는 태어나지 않았든지, 어떤 삶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남녀노소(男女老少)를 불문하고 각 사람은, 자기 민족이나 부(富) 또는 권력이나 섹스 상대, 또는 “사회의 선(善)”이나 유전자 풀(gene pool)의 유지와 같은 배후의 어떤 동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의 기원(his or her Origin) 때문에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이다.”

7. 노인의 존엄성과 의료

1) 현대의료에서 노인의 소외

현대의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문화(세분화), 기계화, 대형화, 상업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현대의료에서 사람은 WHO의 건강 개념에서 지적인 대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대우받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 속의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의학은 사람을 장기의 모임으로, 세포의 조합으로, 유전자의 발현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현대의료의 최고의 피해자는 현실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다. 더욱이 가난한 노인은 형편이 더 어렵다.

세분화된 의학의 영역은 이미 노화로 인하여 여러 영역 가운데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병원에서 방황하게 하였고, 결국은 현대의료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노인이 신경통과 백내장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말인가! 실제로 만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병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고, 자신의 일정대로 투약 받은 약을 다시 조제하고 먹고 있었다.

또한 질병이 이환된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병의원이 접근이 어렵기만 하다.

2) 백발(白髮)이 영화의 면류관(장16:31)이 되기 위해 ...

백발이 존귀하게 되려면, 아니 학대받지 않으려면 의료인의 역할이 크다.⁴⁰⁾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1) 노인의학의 영역이 계발되어야 한다. 노인의 특성을 잘 인지하고 여러 과(科)에 걸쳐있는 노인질환을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생겨야 한다.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노인들을 맞아줄 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분화된 전문영역의 진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해당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다시 종합하는 의사가 필요하다. 소아과가 있듯이 노인과(老人科)라고 하면 어떨까? 이에 따르는 자원 마련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2) 개원가와 2,3차 병원의 의료의 전달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한다. 1차 기관에서 잘 치료받던 환자가 큰 질환으로 발현되면 2,3차 병원으로 가고, 대부분 동네의 가까운 1차 의원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2,3차로의 전원 못지 않게 1차로의 전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 특별히 Primary Physician의 역할이 크다. 또한 지역 사회의 의료에 책임을 느끼고, 일선 관공서와 복지시설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1차 의원에 방문 간호사가 있다면 어떨까?

(3) 그러나 전인(全人)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많아야 한다. 노인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알아 존귀히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노인문제는 단지 현대화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이 학대받는 이유는 현대화 이론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현대의 세계관 때문이다. 이 시대를 세계관의 전쟁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전쟁의 최고의 격전지는 인간론에 대한 부분이다. 그것은 생명의 문제로 나타난다.

낙태문제, 인간의 배아연구, 인간 복제의 시초를 제공하는 게놈 프로젝트, 뇌사와 장기 이식, 안락사, 그리고 노인 학대의 극치인 노부부 자살까지. 가장 약한 인간으로 간주되는 태아의 살인부터, 노인의 학대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인간은 태아부터 죽음을 앞 둔 노인까지 존엄하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거부하고 원형으로 남으려는 인간의 오만 방자함이 계속되는 한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의 학대는 계속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다.

40)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노인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노인의 질병이었기 때문이다.